

강진 대표 먹거리, 1000만 유튜버와 만나다

유튜버 '쏘영', 강진 육회 떡볶이·표고 육전 먹방 선보여 강진군 기관 유튜브 '짚' 4월 초부터 '쏘영' 채널 5일부터

강진군이 지난 23일, 군내 음식점 2곳(코코모, 인담)에서 강진군의 대표 먹거리인 육회 떡볶이와 표고 육전의 홍보를 위해, 구독자 958만을 넘긴 파워 유튜버 '쏘영(한소영)'과 먹방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유튜브 촬영은 먹방 유명 유튜버 가운데, MZ세대를 공략해 이원일 셰프와 협업으로 탄생한 강진 육회 떡볶이와 표고 육전을 가장 맛깔나게 소개할만한 대상으로 구독자 1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젊은 유튜버 '쏘영'을 섭외하면서 성사되었다.

먹방은 강진군 기관 유튜브인 '짚'을 통해, 4월 초부터 만나볼 수 있으며, '쏘영' 채널에서 4월 5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군은 대표 먹거리를 전국에 지속적으로 소

개하고 다양한 관광객들을 견인하기 위해 '강진의 새로운 맛'이라는 콘텐츠를 유튜브의 '쇼츠'나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쏘영은 "강진 한우, 표고버섯을 활용한 강진의 맛깔나는 음식을 아름다운 강진 정자에 플레이팅 해, 보기도 좋고 맛도 좋다"며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한 지역 대표 음식으로 먹방을 한 적은 처음으로, 강진군의 열정에 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쏘영은 많은 구독자들이 강진을 방문해 특별한 맛을 즐겨볼 것을 적극 추천했다.

앞서 군은 지난 1월부터 이원일 셰프와 함께 강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



해 온 끝에, 지난 2월 10일, '강진 한우 육회 떡볶이'와 '강진 한우 표고 육전'에 대한 레시피를 관내 식당 6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진 바 있다.

강진원 군수는 "맛의 도시, 강진 육성은 5백만 관광객 유치에 위한 여러 견인책 가운데 하나로, 남도에서 으뜸인 강진의 새로운 음식 발굴과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는 다양한 홍보로 올 한해 젊은 관광객들이 강진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데 하나로, 남도에서 으뜸인 강진의 새로운 음식 발굴과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는 다양한 홍보로 올 한해 젊은 관광객들이 강진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직장동호회 파격 지원 조직내 새바람 예고

장흥군이 직장 내 건전한 동호회 활동을 통한 직원 화합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3년 직장동호회' 활동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선정된 동호회는 총 15팀으로 연말까지 진행되며,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취미 공유를 통한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과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점심시간이나 휴일 등 근무시간 이후에 활동하게 된다.

현재 장흥군청 동호회는 축구, 배구, 탁구 등 이미 대중화된 동호회 외에도 2023년 처음으로 ▲ 구구 볼링동호회 ▲ MZ세대 참여(보드 게임 동아리) ▲ 직장인 밴드 동호회 등이 신설되어 총 400여명의 직원이 활동하며 조직내 새바람을 예고했다.

군청 직원 10명 이상이 동호회를 구성하면 최대 200만원의 기본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각종 대회나 행사 참여 시 필요경비의 70%, 최대 100만원의 행사 운영비도 지원한다.

군은 이외에도 실과소통 FUN DAY운영, 연가를 활용한 가족힐링의 날 운영 비를 대폭 늘리는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읍·면 사무소에 신청...5월말까지 지급 예정

진도군이 농작물 재배·생산 등으로 쓰이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에 대해 50%를 지원한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1-2월 ▲작년 10-12월의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액을 지원한다.

지원율은 지난해 10-12월까지 3개월분의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고 지원단가

는 kWh당 9.05원이다. 올해 1-2월의 전기요금 인상액 50%(kWh당 14.1)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 육묘·축산·농산물 재배, 저온보관시설, 해충구제와 유인용 전등, 농산물 건조시설 등에 전기를 사용한 농업인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5월 3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를 통해 신청자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대상자의 전력량,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5월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과 농가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농가운영과 영농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 달마고도 봄길 열렸다 '달마고도 힐링축제 개최'

연두빛 신록이 번져가는 땅끝해남 달마고도의 봄 길 열렸다.

해남군은 25일 송지면 달마산 일원에서 2023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우리의 첫 봄, 달마고도와 함께'를 주제로 명품 수제김인 달마고도를 걸으며 여유로운 봄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며칠새 내린 봄비로 초록빛 싱그러움을 더한 달마고도 곳곳마다 전국에서 찾아온 건기 여행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군은 개막식과 함께 길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숲속 버스킹과 재즈, 퓨전 국악, 가야금 병창 등 힐링 음악회를 진행해 지루함 없이 걸을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

또한 노르딕워킹·명상 등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SNS 인증샷 이벤트, 줍깅 챌린지, 해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도 마련되어 흥미를 더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열세 번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준비 박차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30일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받은 청산도에서 오는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30일간 '2023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산완보 스탬프 투어 ▲플로깅 캠페인 ▲은하수 투어 버스 ▲청산 진성 야간 산책 ▲달팽이 엽서 보내기 등이다.

'청산완보'는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 중 4개 코스 이상을 걷고 스탬프를 찍어오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와 청산도의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청산 진성 야간 산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야간 투어 버스를 타고 주민 해설사와 청산도의 곳곳을 탐방하는 '은하수 투어', 엽서를 써서 보내면 1년 뒤에 도착하는 '달팽이 엽서 보내기', 유채꽃이 활짝 핀 청산도에서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 세트 대여', 쓰레기를 주워오면 비누 등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플로깅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유채꽃이 만개할 4월 15일 개막식 날에는 '나비야 청산가자'를 주제로 나비 날리기, 힐링 콘서트, 명사와 함께 걷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21일 군수,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운영에 대한 부서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올봄,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모두 푸른 섬 청산도로 오셔서 바쁜 일상 속 느림의 여유를 만끽하며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